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공고

전주시, 단독주택·준주거·상업용지 66필지... 21일~24일 입찰신청

전주 북부권 개발의 핵심사업인 에코시티 내 체비지인 단독주택·준주거·상업용지 일부가 매각된다. 체비지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해 집행하거나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 1만3606㎡(49필지)와 준주거시설용지 1765㎡(4필지), 상업용지 7807㎡(13필지) 등 총 2만2398㎡(66필지) 규모의 체비지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될 체비지는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지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예정가격은 256억원이다. 에코시티 매각 대상 체비지 m당 평균가격은 단독주택용지는 62만여원,

준주거용지 168만여원, 상업용지 187만여원 등으로 예상된다. 체비지 매각은 오는 11일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한 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4일간 입찰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번 66필지에 대한 체비지 매각과 함께 토지 수요자들이 에코시티 토지공급 관련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입찰종료일까지 소관부서인 신도시사업과에 비치하기로 했다. 체비지 매각은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찰 참가에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다. 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 가능한 공인인

증서가 필요하다. 낙찰자는 최고가격 응찰자로 결정되며, 이달 25일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매매계약체결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시청5층)에서 진행하며, 계약 체결 후 매각대금의 남부방식은 60일 이내 일시납 또는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체비지 토지사용은 원칙적으로 부지개발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가능하지만 대금완납 후 전주시와 현장여건을 고려해 착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장은 "이번 토지매각이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자동적

3개월 이후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 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안을 마련,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고, 도입 기업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하게 된다.

지난해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 인사담당자의 53.4%는 육아휴직과 관련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지만 29.1%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 11.7%는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했다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도 양식에 반영했다. 표준안인므로 회사 실정에 맞게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go.kr) 및 일가양립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익산국토청, 국내 해상교량기술 세미나 자료 영문판 발간 추진

익산국토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국내 해상교량기술의 세계무대 진출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선다.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토목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상교량 합동기술세미나 발표자료의 영문판 발간을 추진한다. 익산국토청은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상교량 기술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한 뒤 기술검토 및 번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특수교량기술, 초장대교량 사업단 연구개발 성과, 특수교량 유지관리 기술 등 30여건이 있다. 특히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인 고강도 재료(강선·강연선) 개발 및 위성을 이용한 교량 계측시스템 등의 자료는 해외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국토청은 관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올 상반기 중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해외 관련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TV홈쇼핑 '최저가·초특가' 83% '거짓말'

방송 후 계속 판매·더 싸게 구입 가능... 40%는 효능·성능 오인 광고 문구 사용

TV홈쇼핑의 70% 가량은 방송 중 '최저가', '초특가'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방송 후에도 계속 판매되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10월 TV홈쇼핑 6개사 100개 상품 판매 방송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0%(70개)는 광고 문구를 통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송은 방송시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문구를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런 문구를 사용한 상품 중 82.9%(58개)는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 등에서 계속 판매되거나 다른 쇼핑몰 등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함께 상품판매 방송의 39.0%(39개)는 효능·성능을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 렌탈·여행상품 판매 방송의 대부분은 중도해지 위약금, 추가비용 등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일부 TV홈쇼핑 관련 모바일앱 광고도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사 제휴 모바일앱 2개는 배너 광고와 가격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 조건(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격처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TV홈쇼핑사에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성주 기자



화이트데이가 멀지 않았어요 롯데마트가 8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보네스베에서 달콤한 딸기 빵 6종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다가오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제철 딸기로 만든 달콤한 딸기 빵 6종을 출시, 오는 10일부터 일주일간 '딸기 초코/치즈 머핀' 2300원, '딸기 크로와상' 및 '딸기 풍당 유유 크림 빵' 각 2800원, '딸기 생크림 데니쉬' 3000원, '딸기 품은 생크림빵' 3500원에 판매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2016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사업은 크게 경영기술 컨설팅, 특허형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으로 나뉜다. 경영 기술 컨설팅은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조직 등 경영 전 분야와 생산혁신, R&D 등 기술 전 분야에 대해 업력제한 없이 지원한다. 특허형 컨설팅은 신(新)서비스업 분야 미래성장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한다. 원스톱 창업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창업공감상담 절차 대행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중소기업, 컨설팅 업계 등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기존 반기 신청을 매월 신청 방식으로 변경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청기간 축소, 대면평가 폐지, 사전진단 현장평가 및 수행계획 서면평가 등을 통해 선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기관과 컨설턴트는 오는 18일까지 중소기업 컨설팅 종합관리시스템(www.smbaon.go.kr)에 등록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tc.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광영 기자

"지금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적기"

IMF, 원자재 가격 올해 저점 통과 가능성 높다 평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올해에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지금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의 적기' 보고서를 통해 흐름상 올해 세계 원자재 가격이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WTI)와 천연가스 가격은 2016년 2월 현재 각각 배럴당 29.1달러, 100만 BTU(British Thermal Unit)당 1.94달러로 2011년 초 대비 약 70% 하락했다. 주요 금속 원자재인 알루미늄과 구리도 동기간 약 40%~55% 정도 떨어졌다. 이와 같은 추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세계 원자재

가격 사이클을 보면 가격은 2011년 고점을 찍은 후 2016년 현재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원자재 가격이 올해 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원자재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0~2010년 초반까지 약 10%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하반기 이후 적자로 전환했다. 또한 원자재 기업의 주가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당 기업가치 역시 2000년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인진수 기자

신보 '투자옵션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투·융자 복합금융 상품인 '투자옵션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투자옵션부보증 지원대상은 설립 후 5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신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기업과 투자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지원 후 5년 이내에 일정수준 이상 성장한 기업에 대해 관련 보

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한다. 보증금액은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가능하고, 100% 전액 보증 및 고정보증료 0.5%를 적용하여 우대하며, 올해 200억원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상담은 신보 8개 창조금융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신보 자본시장부 담당자 전화문의(053-430-4454, 4455)를 통해 가능하다. /정영수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